

큰 스님 수행한담

“오늘 내 행동 하나하나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언어품(言語品) ②

解自抱執 解자포손의 불멸言得中 부조언득중 義說如法說 의설여법설 是言美歎甘 시언유언감

스스로 해꼬지할 생각 풀어버리고 경솔하지 않은 말로 중도에 들어 이치로 말함이 법다운 말이 되면 이런 말은 부드럽고 달기도하다

是以言語者 시언언어자 必使己無患 필사기무환 亦不怨家人 역불극중인 是為能善言 시유능선언

그러므로 말이란 것은 반드시 제겐 후환이 없게하고 다른 이를 다치지 않아야하니 이것이 잘하는 말 좋은 말이 된다

言投意可 언사투의가 亦令侍歡喜 역립특환희 不使至惡意 불사지악의 出言眾悉可 출언중심가

말을 뜻에 맞게 쓸줄 알아

即言即行 즉언즉행 罪苦自道 죄고자주 車轉於轡 거러어질

마음은 일체법의 근본이 되어 마음이 주인으로 모든 일을 시킨다 마음 속에 악한 생각 풀어지니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즉 죄의 고통이 스스로 따라 붙어 수레가 바퀴자국 따르듯하네

心為法本 심위법본 心尊心使 심존심사 中心念善 중심념선 即言即行 즉언즉행 罪苦自道 죄고자주 如影隨形 여영수형

마음은 일체법의 근본이 되어 마음이 주인으로 모든 일 부리니 마음속에 착한 생각 풀어지니면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즉 복의 즐거움이 스스로 따라붙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듯 하네

隨心隨行 수란의행 拘惡入冥 구우입명 自大無法 자대무법

말을 뜻에 맞게 쓸줄 알아

“지성스런 말은 법다워 허물이 없어 제겐 후환없고 남 다치지 않게한다”

상대가 즐겁게 들도록 하고 나쁜 뜻에 이르지 않게하면 하는 말마다 모두다 좋은 말이 된다

至誠甘說 지성감로설 如法而無過 여법이무과 諸如義如法 체여의여법 是為近道立 시위근도립

지성스런 감로의 말은 법다워 허물이 없고 이치가 이치답고 법다우면 이는 도에 가까웁다 하느니라

說如佛言者 설여불언자 是得淨度 시길득닐도 為能作活際 위능작호제 是謂言中上 시위언중상

그 말이 부처의 말과 같은 이 경사문이 열반경지에 들어 능히 큰 법을 이루나니 이를 열려 말중의 으뜸이라 한다

쌍요품(雙要品) ①

心為法本 심위법본 心尊心使 심존심사 中心念惡 중심념악

何解善言 화해선언

어지러운 뜻을 따라 행하고 어리석음에 얽매어 어둠에 빠져서 스스로 잘난척 밥을 모르면 어떻게 선한 말씀을 깨달으리오

隨正修行 수정의행 開解淨明 개해정명 不為嫉妬 불위투질 敏達善言 민달선언

바른 뜻을 따라 행하고 맑고 밝음을 깨우쳐 알고 투기하거나 미워하지 않으면 선한 말씀 빨리 통달하리라

隨於惡者 온어원자 未嘗無惡 미상무원 不憚自除 불온자제 是道可察 시도가중

원한가진 이에 성을 내면 원한 없기를 바랄 수 없다 성내지 않으면 스스로 없어지니 이 도는 으뜸 삼음만하다

龍眼

우룡스님 (학생선원 한주)

“제대로 살려면 인생가계부 쓰자 복짓기 보다 죄많이 지으면 적자”

모든 법은 언을 좇아 생겨났다가 언이 다하면 흠어진다 고 했는데 이렇게 언이 닿아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중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속가에서 살아가는 것도 다 인연따라 그렇게 된 것일뿐 특별히 무엇이 달라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루어준다는 것이 벌써 자격이 없는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7년에 해인사에서 출가를 했는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일본에서 생활하시던 형제들 모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도 일본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복되면서 돌아오게 되었죠. 빈털털이로 돌아오니 부모님과 여섯남매가 당장 먹고 사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하루는 해인사에 출가해 있던 외숙부가 왔는데 나보고 공부하러 가자고 하시네요. 그때는 공부라는 말이 그냥 글 배우는 학교공부로 생각했고 부친께서도 그러라고 하셔서 따라 나선게 내 출가입니다.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이라 내가 출가한 이후로도 집안이 퍼지질 않고 어려우니 내가 20대 중반이 되자 부친께서 이제 그만 속가로 와서 살라고 자주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도 내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어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출가인연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부친이 12살 때 조부님 심부름을 가다가 고개턱에서 한 스님과 마주치셨답니다. 그때는 마을에서 울면 스님이 잡아 간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스님을 무서운 존재로 느끼던 시절이라 어린 부친은 덜컥 겁을 먹었답니다. 그런데 스님은 부친께 당신을 따라 공부할 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부친께서 안된다 하니까 몇가지 집안에 관계된 일을 예견하시면서, 지금 부친이 절에 공부하러 가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중에 스님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가던 길을 가셨답니다. 부친께서는 그 스님께서 큰 도인이시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얘기가 같지만, 인연의 즐거움 참으로 단단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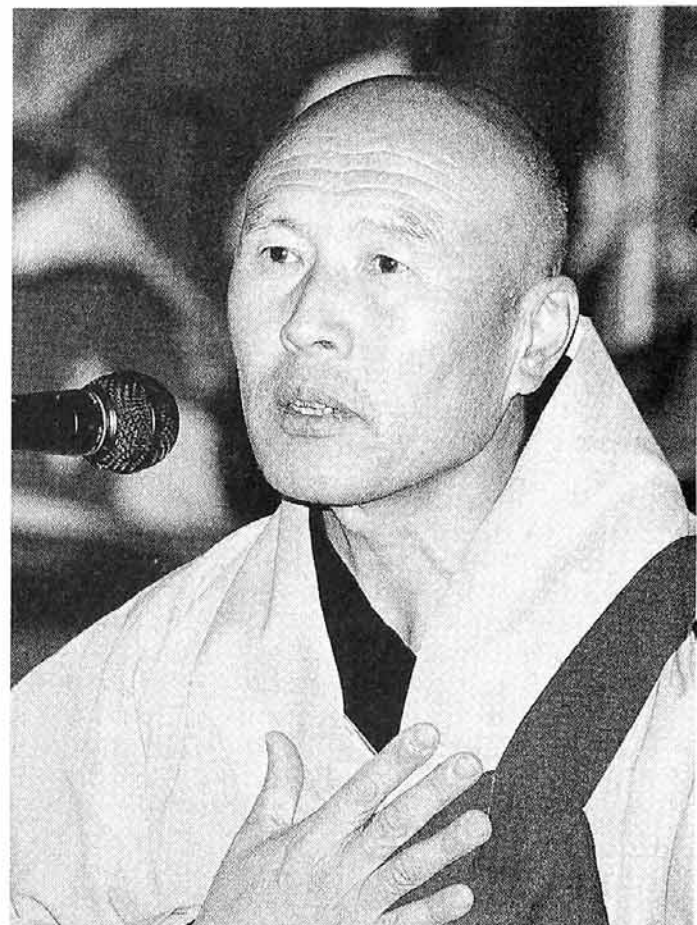
그렇게 출가를 해서 고향스님께 경학을 배웠습니다. 손꼽히는 학자이신 스님

을 은사로 모시고 공부를 했는데 경학을 마치기까지 장애가 많았습니다. 내가 배우고자 해도 자꾸 어떤 사정으로부터 중단이 되곤 해서 62년에서야 비로소 청암사 극락암에서 고산스님과 함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고봉스님은 항상 나에게 선(禪)을 주춧돌로 하는 공부를 가르치셨습니다. 생활을 하든 교학을 배우든 항상 그 중심은 선에 두고 중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생활선에 뛰어난 포교보다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선을 중심삼아 살고 있습니다.

이곳 학생선원에서 20년 이상 살고 있지만 아직도 선방에서 공부하던 그 당시

- 약력 · 20년 일본서 출생 · 47년 해인사 고봉스님을 은사로 출가 · 55년 동산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 20여년전부터 울산 학생선원 한주로 주석



세상사람 모두 부처될 거룩한 존재 서로 존경하고 섬길 줄 아는 것이 불성 주춧돌 놓는 시발점입니다

의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사람들과 함께 불성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불법보다는 생활 가까운 불법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상속에서 자기 마음을 잘 단속하는 것으로 열불이든 기도든 참산이든 부지런히 정진하다 보면 자연히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늘 말씀드립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똑 같이 부처될 가능성을 가진 부처님의 제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부처님 집안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부처님 집안의 가풍에 맞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이 있습니다. 물거품 주춧돌과 불성의 주춧돌이 그것입니다. 불자라면 불성의 주춧돌을 바로 세우고 일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불성의 주춧돌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불성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잡을 수도 없고 빚잡도 소리도 없고 그러면서도 필멸 살아있는 어떤 기운같은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이 불성을 시작도 끝도 없고 가고 옴이 없기에 불성불멸(不生不滅)이라고 했고, 때가 끼는 일이 없고 더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구부정(不垢不淨)이라고 했습니다. 또 누구나가 평등하고 한결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중불감(不增不減)이라고 했습니다. 불자라면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여려한 경지인 불성지리를 찾아 가야 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불성을 자기 스스로 수용하는 자수용(自受用)의 세계를 체험해 보십시오. 그 체험을 통해 절대유일의 불성지리로 들어가서 살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불자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살아야 합니다. 진리의 소리를 듣고 진리를 생각하고 진리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자신의 생활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부처님 사람으로서 당연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불자라면 나의 일상생활이 어떤 생활이 되고 있는지를 늘 반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절에 머무름때는 부처님의 제자이지만 절문을 나서면 불자인지 무종교인인지 분별이 안되는 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불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불자는 마음의 주춧돌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가지 주춧돌

생활속의 불교 124

깨달음의 길에 기발한 손자병법은 없다!

“물이 흐르고 흘러 결국 바다에 도달하듯이 누구라도 끝내는 성불하고 말 것이다. 물이 흐르다가 갖가지 웅도로 쓰여져 그만 흐르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 가는 경우도 있지만 끝내는 바다에 이르듯이 인간도 탐심 진심 치심 망심 따위로 가던 길을 멈추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다가도 결국은 성불의 바다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의심치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초조해하지 말라. 의심치 않고 두려워 하지 않고 초조해 하지 않는다면 나의 참 근본은 곧 부처이니 나의 뜻과 부처님의 뜻이 하나로 돌아갈 때가 찾아 오리라.”

일찍 생각하기에 진귀한 보물은 산 밑고 물 건너 먼 곳 어디에, 낮 설고 은밀한 곳 어디쯤에 있을 것 같이 여겨진다. 고로 보물을 손에 넣으려면 온갖 고초를 겪어야 할 것이라고 지레 겁먹게 된다. 보물을 손에 넣으려 하는 사람은 그래서 대개는 빠른 방법, 지름길을 적어 놓은 보물지도부터 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자연히 두리번거림이 시작된다. 여기 저기 기웃대게 된다.

그러나 바로 내 안에, 내 마음 속에, 내 살림살이 중에 길이 있고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가 있다. 감에게도 있고 음에게도 있다. 유식한 사람, 잘난 사람에게만 열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삼이사(張三李四) 누구에게라도 있다. 그렇게 없다면 법등명(法燈明 自燈明)은 속임수가 된다.

두리번거림은 믿음이 약한 탓이다. 누구라도 끝내는 성불하고 말 것이라는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약한 탓이다. ‘너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귀찮으로 흘려 보낸 탓이다. 길은 이미 제시되어 있다. 깨달음의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부처님에 의해 오래 전부터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 더우기 그 길은 우회로가 아니라 직행로이다. 그리고 그 길은 내 마음 안으로 뚫혀 열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하면 된다.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를 때에 숨을 고르며 묵연히 한 발 한 발 떼어놓듯이 그렇게 걸어가면 된다. 이 골 저 골 골마다 들어가 볼 필요도 없



이 이미 열려진 길로 소걸음처럼 걸어가면 된다. 그것이 믿음이고 정진이다. 거기엔 두리번거림이 없다.

구비 구비마다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 길도 다듬어져 있다. 부처님의 팔만사천 장광설이 그것이다. 거기엔 감을 위한 가르침도 있고 음에게 알맞는 가르침도 있다. 오늘에 맞는 가르침도 있고 내일의 경계에 맞는 가르침도 있다. 없는 것 없이 다 있다. 고로 더 이상 다른 것은 없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육사외도(六邪外道)를 두루 설법하시고 마침내 큰 깨달음에 들어서서 제시하신 길 이외에 다른 무엇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의 문제이다. 믿는 마음에 틀어 생긴 것이다.

깨달음을 향한 발걸음에서 그 도정(道程)의 길다 짧다를 기약하지 말라. 그것은 묵연한 발걸음-정진을 방해한다. 어디 탐을 쌓는 데 단숨에 쌓아 올릴 방법이 있겠는가. 밑에서부터 한 층 한 층 정

성을 기울여 쌓아 올리는 길 밖에는 없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에서 빠르다 느타를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바른 길로 가는 수행을 방해한다. 빨리 가고자 하면 길을 잘못 들기 십상이고 더딘 것을 닦아내면 주저앉기 쉽다. 묵묵히 참고하고 정진하는 것, 그것 이외에 황도는 없다. 마음 공부에서 기발한 병법은 없다. 애초부터 손자병법 같은 것은 없다. 있다면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육바라밀·팔정도가 있을 뿐이다.

일찍이 조사스님들이 애쓰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길에 다가 다리틀 놓고 장애물을 치우고 길을 넓히고자 한 것이 지 또 다른 지름길을 여신 게 아니다. 설사 새 길을 열어 놓은 듯이 보여도 그것은 직행로가 아닌 우회로일 뿐이다. 길은 부처님께서 열어 놓으신 마음의 길 그것 뿐이다. 자성불을 믿고 내 마음, 내 살림살이로 눈을 돌려 참고하고 정진하는 것, 그것이 마음공부의 손자병법이다.

협찬 : 홍인숙